



제20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개최

연구원은 국토연구원 및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20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워크숍으로, 한국과 일본의 건설경기 현황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서 연구원의 박철한 연구원은 '한국 플랜트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건축학회 교수단 연구원 방문

일본건축학회 소속 교수단이 지난달 4일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일본건축학회 건설생산시스템분과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교수단은 연구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고용포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이날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고용포럼의 설립 배경 및 산업 차원의 의의'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용석 연구위원, 국회 SOC 정책토론회서 주제 발표

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이 지난달 15일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저성장 시대 극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SOC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지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SOC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등 건설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아 연구위원, LH공사·한국주거학회 세미나서 주제 발표

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주거학회가 지난달 4일 공동 주최한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유형 개발' 세미나에서 '100세 주거 :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주택 문화의 출현과 그에 맞는 주택 공급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획 교육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 과정' 개설

연구원은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건설 및 유관 업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 과정(3차)'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재무 모델 실습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건설업체 및 정부, 유관 기관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교육팀(02-3441-0691)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ERIK